

이음씨 '그러-' 류의 대용적 특성

차 윤 정*

The sub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njunction '그러~'

Cha Yun Jung

목 차

- | | |
|------------|------------|
| 1. 머리말 | 2.2. 상황 대용 |
| 2. 대용의 종류 | 3. 대용의 방향 |
| 2.1. 문맥 대용 | 4.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말에서 '영이가 노래한다'와 '순이가 춤을 춘다'라는 상황을 말할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해서 언어화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다.

- 1) ㄱ. 영이가 노래하고 순이가 춤을 춘다.
- 나. 영이가 노래한다. 그리고 순이가 춤을 춘다.

1ㄱ)은 두 상황을 이음씨끝 '-고'로 이어서 하나의 월로 실현시킨 예이고, 1나)은 두 상황을 각각 하나의 월로 실현시켜서 두 개의 월로 만들고 이것을 이음씨 '그리고'로 이어준 것이다. 1)에서 보면 ㄱ)의 이음씨끝 '-고'는 마디와 마디를 이어 하나의 월이 되게 하는 이음의 기능을 가지고 나)의 '그러나'는 월과 월을 이어주는 이음의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ㄱ)과 1나)은 동일한 문맥에서 서로 대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1ㄱ)의 이음씨끝 '-고'와 1나)의 이음씨 '그리고'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 이음 표지²⁾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기능의 유사성은 1나)의 이음씨 '그리고'가 어원적으로 1ㄱ)의 이음씨끝 '-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

- 1) 강우원(1996)에서는 어찌씨, 풀이씨, 느낌씨와의 비교를 통해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등을 이음씨로 설정하고 있으며, 박선자(1997)에서도 어찌씨와의 차이를 들어 이들을 이음씨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기대어 이들을 이음씨로 처리하기로 한다.
- 2) 이 글은 이음씨나 이음씨끝의 의미 기능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이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것은 선행 연구에 기대기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 이음씨끝 '-고'는 공간 나열, 계기 나열, 동시 나열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음씨는 계기 나열, 동시 나열같은 순접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이음씨끝과 이음씨 사이의 대치가능성은 '-으나, -므로, -아서/어서'와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와 같은 다른 이음씨끝과 이음씨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 2) ㄱ. 영이는 밥을 먹었으나 철수는 떡을 먹었다.
 ㄱ'. 영이는 밥을 먹었다. 그러나 철수는 떡을 먹었다.
 ㄴ. 영이는 숙제를 마쳤으므로 집으로 가도 된다.
 ㄴ'. 영이는 숙제를 마쳤다. 그러므로 집으로 가도 된다.
 ㄷ. 영이는 어지러워서 폼짝도 할 수가 없었다.
 ㄷ'. 영이는 어지러웠다. 그래서 폼짝도 할 수가 없었다.

2ㄱ)과 ㄱ')는 '영이는 밥을 먹었다'와 '철수는 떡을 먹었다'라는 두 상황을 이음씨끝 '-으나'와 이음씨 '그러나'를 사용하여 관련시킨 예이고, 2ㄴ)과 2ㄴ')는 '영이는 숙제를 마쳤다'와 '영이는 집으로 가도 된다'를 이음씨끝 '-므로'와 이음씨 '그러므로'를 사용하여, ㄷ)과 ㄷ')는 '영이는 어지러웠다'와 '영이는 폼짝도 할 수가 없었다'를 이음씨끝 '아서/어서'와 이음씨 '그래서'를 사용하여 관련시킨 예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문맥에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음씨끝이나 이음씨로 이어진 윗들이 서로 대치가능한 것은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와 같은 '그러(그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음씨들이 기원적으로 풀이씨의 줄기 '그러하(그리하)-'에 이음씨끝들이 결합되어 재구조화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응 풀이씨의 줄기 '그러하-(그리하-)'와 이음씨끝이 결합되어 재구조화된 이음씨를 이음씨 '그러'류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이음씨'라고 기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모든 문맥에서 이음씨끝과 이음씨가 대치가능한 것은 아니다.³⁾ 다음의 예들에서는 이음씨와 이음씨끝의 대치가 어색해 보인다.

- 3) ㄱ. 간혹 비둘기가 빛의 대해로부터 떠밀리듯 창 앞에 와서 앉을 때 여자는 허공으로부터 나타난 그 새의 실체가 몹시 이상했다. 그러나 잠시 그렇게 있을 뿐 비둘기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향시 그대로 빈 창일 뿐이다.(봄의 幻; 351)
 ㄱ'. ?간혹 비둘기가 빛의 대해로부터 떠밀리듯 창 앞에 와서 앉을 때 여자는 허공으로부터 나타난 그 새의 실체가 몹시 이상했으나 잠시 그렇게 있을 뿐 비둘기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향시 그대로 빈 창일 뿐이다.
 ㄴ. 삼청 교육대가 수용되고 난 몇 달 뒤인 어느 일요일, 나는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어떤 의무감으로 한번 그곳에 예배차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날 주변 사령을 맡고 있던 4과장은...잠시 난색을 보이다가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몇몇 신자 사병들과 주머니를 털어 빵과 커피를 샀다. ...우리는 개울을 건너 차리포대의 새로 쳐놓은 철조망 울타리를 지나갔다. 안면 있는 보초가 총을 들고 서 있다가 우리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웃음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막사 안으로 들어가려니 바짝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별; 94)
 ㄴ'. ?삼청 교육대가 수용되고 난 몇 달 뒤인 어느 일요일, 나는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어떤 의무감으로 한번 그곳에 예배차 찾아간 적이 있었다. ...안면 있는 보초가 총을 들고 서 있다가 우리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웃음을 보냈으나 막상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막사 안으로 들어가려니 바짝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3ㄱ')와 3ㄴ')는 3ㄱ)과 3ㄴ)의 이음씨로 이어진 윗들을 이음씨끝을 사용하여 하나의 윗로 이은 것이다. 그런데 이음씨로 이어진 윗들은 자연스러운데 반해, 이음씨끝으로 이어진 윗들은 어색하다.

3) 이 글에서 이음씨와 이음씨끝의 대치가능성은 이음씨끝이 마디와 마디를 잇는 윗 안에서의 통사적인 단위라는 것과 이음씨가 윗과 윗을 잇는 윗 밖의 단위라는 점에서 서로 대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이음씨끝 '-으 나' 로 이어진 3ㄱ')와 3ㄴ')에서는 선행 마디와 후행 마디의 내용이 직접적인 대립의 의미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서로 대립의 의미 관계에 있지 않은 두 마디를 대립의 의미 기능을 가진 이음씨끝 '-으 나' 로 이었기 때문이다.⁴⁾ 이에 비해 이음씨로 이어진 월들이 자연스러운 것은 '이음씨'가 대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3ㄱ)에서는 '그러나'가 '간혹 비둘기가 창 앞에 와서 앉았으나'를 대응하여 '잠시 그렇게 앉았을 뿐...'과 관련시키므로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 3ㄴ)에서는 '그러나'가 선행하는 월들의 내용을 요약한 '나는 받은 호기심으로 받은 의무감으로 주변 사령에게 간청하여 빵과 우유를 사들고 삼청교육대를 찾았으나'를 대응하여 '막상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앉을 수 없었다'와 대립되게 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음씨는 대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음씨에 의해 의미적으로 이어지는 월들은 그 사이에 직접적인 의미 관련이 없는 다른 마디나 월이 개입되어도 어색하지 않게 연결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 이음씨와 이음씨끝은 동일한 문맥에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떤 문맥에서는 이런 대치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음씨끝이 선행마디와 후행 마디 사이에서 이들을 직접적인 의미 관계로 맺어 주는데 비해, 이음씨는 대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선행하는 월과 후행하는 월을 반드시 직접적인 의미 관계로 맺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음씨가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이 아닌 다른 월을 대응하게 되면 이음씨끝으로의 대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의 기능은 이음씨를 이음씨끝과 같은 다른 이음표지들과 구별해주는 특징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음씨의 대응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이들이 어떤 대상을 대응하는지를 살펴서 대응의 종류를 나누어 보고, 그에 따르는 특성과 대응의 방향에 대해 알아 보겠다.

2. 대응의 종류

대응이란 동일한 언어 형식의 되풀이를 피하고자 혹은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말할이의 의도가 작용하여, 실질적인 의미 내용을 가지지 않는 말로 언어적인 대상이나 비언어적인 대상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문법적인 현상을 말한다.⁵⁾ 김일웅(1982)에서는 대응어가 어떤 대상을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응을 문맥 대응과 상황 대응으로 분류하였다. 즉 대응의 대상이 언어적이면 문맥 대응, 비언어적이면 상황 대응이 된다. 이 글에서는 문맥 대응을 다시 대응되는 대상에 따라 대응의 대상이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 선행하는 단락이나 여러 월인 경우 그리고 이음씨와 대응되는 대상 사이에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월이 개입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그런데 이음씨의 문맥 대응에서는 이음씨가 대상이 되는 언어 표현을 그대로 대응한다기 보다는 그 의미 내용을 대응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음씨의 대응 현상은 대응의 대상과 대응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화된 또는 언어화된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 내용을 대응하는 것이므로 문맥 대응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2.1. 문맥 대응

이음씨의 문맥 대응은 대응되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응의 대상이

- 4) 윤평현(1992 : 75-76)에서는 이음씨끝 '-으 나' 는 두 명제가 반대 또는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루도록 결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립]의 의미 기능을 가지며, 이때 [대립]은 반대 또는 대조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 5) 대응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정의를 조금씩 달리 하여 조용(장경희,1991) 또는 지시(신지연1995)라고도 사용된다.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와 대상이 선행하는 단락이나 여러 월인 경우, 그리고 이음씨와 대용의 대상 사이에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월이 개입된 경우이다. 대용의 대상이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는 이음씨가 대체로 대상이 되는 언어 표현을 그대로 대용하게 되지만, 선행하는 단락이나 여러 월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음씨가 실제로는 이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대용한다. 그리고 이음씨와 대용의 대상 사이에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월들이 개입된 경우는 대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의 월인지 또는 단락이나 여러 월인지에 따라 이음씨가 대용하는 것이 달라진다. 대용의 대상이 하나의 월이면 대체로 별다른 요약 없이 대상을 그대로 대용하게 되고, 대상이 단락이나 여러 월이면 이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대용하게 된다.

2.1.1. 대용의 대상이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

다음은 이음씨가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을 대용의 대상으로 하는 예들이다.

- 4) ㄱ. 남편은 원래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못되게 굴어서 집에선 그렇게 무섭게 할 수 밖에 없었나봐. (그늘바람꽃 ; 338)
- ㄴ. 폭풍이 이는 날에는 수로의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안개, 특히 겨울 안개에 조심하라. (하나코는 없다 ; 11)
- ㄷ. 물론 그는 더 빠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원을 구태여 밝히면서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싫었고 그러느라 정작 하나코의 연락처를 알려준, 그녀의 동창이라는 불친절한 목소리의 남자에게 그녀의 근황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코는 없다 ; 22)
- ㄹ. 그래서 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너를 눈여겨 보고 있단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일어서서 나에게로 올 때 너는 웬 여자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나는 붙든 네 손을 떼어 놓으려고 했다. 여자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보다 귀찮으니까. (어두운 기억의 저편 ; 55)

위의 예들에서처럼 대상이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 이음씨는 대체로 선행하는 월을 그대로 대용한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언어 표현이 비교적 간단하여 의미의 요약과 같은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이음씨는 선행하는 월의 내용들을 대용하면서 단순히 명제 내용만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법 요소인 주체 높임이나 상, 때매김까지 대용한다.

- 5) ㄱ. 현구가 병이 있으니 병원 감정유치를 청구하여 종합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상경했었다. 그러나 내가 소련으로 떠날 때까지 그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었다. (마음의 감옥 ; 25)
- ㄴ. 영이는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리고 순이는 문제를 다 풀 상황이었다.
- ㄷ. 할머니께서는 바느질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바느질을 끝내셨다.

5ㄱ)에서 '그러나'는 '현구가...상경했었으나'를 대용한다. 이것은 이음씨가 때매김이나 상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까지 대용함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때 안맺음씨끝 '-았었'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모두를 생략하게 되면 후행하는 월과의 연결이 어색해진다. 5ㄴ)에서 '그리고'는 '영이는 문제를 풀고 있었고'를 대용하여 이음씨가 상과 때매김까지 대용함을 보인다. 5ㄷ)에서 '그러나'는 '할머니께서는 바느질을 하고 계신다'를 대용하고 있으므로 이음씨가 대용하는 범위에 상과 주체높임이 포함됨을 보인다. 이렇게 이음씨 '그러-'류가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의 내용을 대용할 때는 선행하는 명제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서법 요소 중 때매김이나 주체 높임, 상 등의 요소도 함께 대용한다.

2.1.2. 대응의 대상이 단락이나 여러 월인 경우

이음씨가 대응하는 대상이 선행하는 단락이나 여러 월인 경우, 대응되는 대상인 단락이나 여러 월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이들을 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응의 대상이 되는 단락이나 여러 월들 속에 이들의 의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중심월 없이 여러 월의 의미 내용이 병렬적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먼저 대응되는 단락이나 여러 월들 속에 이들의 의미 내용을 포괄하는 중심월이 들어 있는 경우를 살펴 보자.

- 6) 가. 그는 신대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목소리로 아이들의 성격과 얼굴을 생각했다. 지금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할 아이들의 어머니, 화단에 물을 주는 아빠... 그러나 가방 생각이 그의 여유있는 상상을 빼앗아갔다.(어두운 기억의 저편 ; 17-18)
- 나. 그들은 차의 문을 열고 좌석에 앉았다. 차안은 난장판이었다. 여기저기 둘러싼 담배와 먹다 흘린 빵 조각들, 낡은 옷, ... 도로망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지도책. 그러나 막상 앉자 이상한 행복감과 안도감이 충만하기 시작했다.(깊고 푸른 밤 ; 17-18)

6가)에서 '그러나'는 선행하는 월들 모두를 대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응의 대상이 되는 월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보면, '그는 신대리가... 생각했다'라는 월이 중심월이 되고 '지금쯤 하얀... 아빠...'라는 부분이 중심월의 내용을 상세화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러나'에 의해 대응되는 대상을 요약하면 중심월인 '그는 신대리가... 생각했다'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나'가 대응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중심월인 '그는 신대리가... 생각했다'이다. 6가)과 마찬가지로, 6나)에서도 '그러나'가 대응하는 대상은 중심월로 볼 수 있는 '차안은 난장판이었다'와 그것의 내용을 상세화한 부분인 '여기저기...지도책'이다. 따라서 6나)의 '그러나' 역시, 중심월인 '차안은 난장판이었다'를 대응한다.

이렇게 볼 때 이음씨가 대응하는 대상이 선행하는 단락이나 여러 월들인 경우, 그 속에 전체의 의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이 있으면 이음씨는 중심월을 대응한다.

다음은 이음씨가 대응하는 대상인 단락이나 여러 월들 사이의 의미 관계가 병렬적이어서, 선행하는 월들 속에서 이들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 7) 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나. 신문잡지 노트 종이를 따로 버리면 나라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종이들은 백화점 봉투에 모아서 버리려고 노력한다. 세제로 인한 식수 공해를 알고부터 여자는 되도록 세제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각종 포장지 간장병 기름병 플라스틱 제품 고무장갑, 또 들기름 참기름 등의 씻어내기 힘들어 다시 쓸 것 같지 않은 병 종류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그때마다 망설인다.(봄의 幻 ; 351-352)
- 다. 싸움은 다짜고짜 의부가 한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한 손으로 어머니를 후려 때는 것이 순서인데, 그러면 때면 어머니보다 누나가 먼저 눈을 뒤집은 채 속절없이 나자빠지곤 했다. "오매, 누가 울 엄니 좀 살려주세요, 울 엄니가 죽소오." 누나가 그럴수록 의부의 손속은 사나워지곤 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나는 한 번도 어머니와 의부의 싸움에 끼여든 기억이 없다.(아름다운 얼굴 ; 30)
- 라. 하나코. 그것은 그들만의 암호였다. 한 여자를 지칭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암호. 한 여자가 있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도시적 감성에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때문에 암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코 앞에서 그녀를 별명으로 부른 적도 없다. 그들끼리만 모였을 때, 지루하고 전망 없는 하루 저녁 술자리에서 그녀를 지칭하느라 우연히 튀어나온 농담조의 이 별명이 암호가 되었다.

그들은 암호 만들기를 좋아하는 삶의 그리 밝지 못한 단계를 지나고 있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대충 스물네댓 정도의 나이를 먹었고 모두들 대학 졸업을 앞둔 상태였다.

어느날 그들 무리 중 하나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 여대생을 소개했다. 키가 유난히 작고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대화에 무리없이 끼어 들고 이마를 왼쪽으로 기웃하면서, 가끔 논리를 벗어난 그들의 객기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던 여자 「왜 그렇게 생각하죠?」라든지, 혹은「아마 우리가 모두 젊기 때문에 그럴거예요. 어떻게 그 젊음을 써야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같은 말을 해서 그들 모두를 당황케 만들던 여자가 하나코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어떤 모임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그녀를 그들에게 소개한 것이 P였는지 Y였는지...(하나코는 없다; 14 - 15)

7ㄱ)에서 ‘그러므로’가 대응하는 대상은 선행하는 두 월이다. 그런데 이 두 월은 의미상 대전제와 소전제의 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후행 월의 전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는 후행하는 월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대응하는 것이다. 7ㄴ)에서 ‘그러나’가 대응하는 대상인 선행하는 두 월 역시,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보이므로 두 월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이어서 요약해야만, ‘그러나’가 대응하는 내용인 ‘그 여자는 종이들은 백화점 봉투에 모아서 버리려고 노력하고 세제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나’가 된다. 7ㄷ)에서 ‘그러나’가 대응하는 대상은 선행하는 월들 전체이다. 그런데 이들 속에도 전체적인 의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나’가 대응하는 내용은 이들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누나는 매번 부모님의 싸움에 끼어들었으나’ 정도로 볼 수 있다. 7ㄹ)에서 ‘그러나’가 대응하는 대상은 선행하는 단락들 모두이다. 그런데 이 단락들 속에도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이 없으므로 ‘그러나’가 대응하는 내용은 전체를 요약한 것이 된다.

위의 예들에서처럼 이음씨가 대응하는 대상이 단락이나 여러 월인 경우, 그것들 속에 대상이 되는 단락이나 월들의 내용 전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이 있으면 이음씨가 중심월을 대응하게 되고, 중심월이 없으면 단락이나 월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이음씨의 대응에서는 대응되는 대상과 실제로 대응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음씨의 이러한 대응적 특징은 문맥의 이해 과정에서 들을이에 따라 이음씨가 대응하는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2.1.3. 이음씨와 대응의 대상 사이에 의미상 직접적 관련 없는 월이 개입된 경우

이음씨로 이어진 월들 중에는 이음씨와 대응의 대상 사이에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월들이 개입된 경우가 있다.

- 8) ㄱ. 영이는 숙제를 하기 위해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혼자서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날 밤 영이는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
- ㄴ. 삼청 교육대가 수용되고 난 몇 달 뒤인 어느 일요일, 나는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어떤 의무감으로 한번 그곳에 예배차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날 주변 사령을 맡고 있던 4과장은...잠시 난색을 보이다가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몇몇 신자 사병들과 주머니를 털어 빵과 커피를 샀다. 낙엽수들의 잎새가 울긋불긋 변해가고 땅바닥에서 찬바람이 일 무렵이었다.
우리는 개울을 건너 차리포대의 새로 쳐놓은 철조망 울타리를 지나갔다. 안면있는 보초가 총을 들고 서 있다가 우리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웃음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막사 안으로 들어가려니 바짝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별;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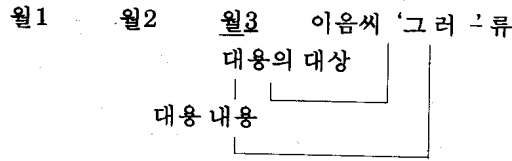
8ㄱ)에서 ‘그러나’가 대응하는 대상은 ‘영이는 숙제를... 돌아왔다’이다. 그런데 대응의 대상과 이음씨 ‘그러나’ 사이에는 이들의 의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월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경우 이음씨는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월들을 넘어 대응의 대상이 되는 월의 내용을 대응한다.

이음씨 '그러-'류의 대응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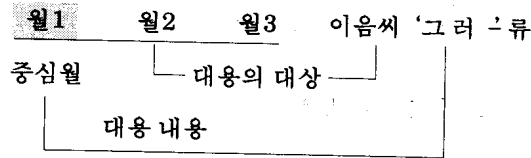
8ㄱ)에서는 대응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의 간단한 월이므로 이음씨에 의해 그대로 대응된다. 8ㄴ)에서 '그러나'가 대응하는 대상은 선행하는 단락들이다. 이음씨와 이 대상들 사이에도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월들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음씨는 대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월들을 넘어 대응의 대상과 관련될 수 있다. 8ㄴ)에서 '그러나'가 대응하는 내용은 대상이 되는 단락들을 요약한 '나는 받은 호기심으로 받은 의무감으로 주변 사람에게 간청하여 빵과 우유를 사들고 삼청교육대를 찾았으나'이다. 대응의 대상이 단락이면서 그 속에 전체의 의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이 없으므로 단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그러나'가 대응하는 내용이 된 것이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살펴 본 것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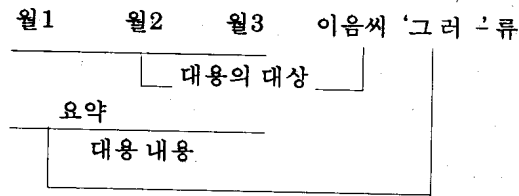
1) 대응의 대상이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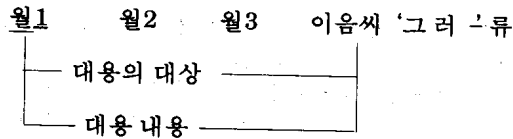
2) 대응의 대상이 여러 월이거나 단락인 경우



① 중심월이 있는 경우



② 중심월이 없는 경우



3) 대응의 대상과의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월이 개입된 경우

2.2. 상황 대응

이음씨의 상황 대응이란, 이음씨가 대응하는 대상이 언어화되지 않은 말합이의 생각이나 의도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9) ㄱ. 형은 키가 크다. 그러나 동생도 키가 크다.

ㄱ'. *형은 키가 크나 동생도 키가 크다.

차 운 정

- ㄴ. 영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나 운동도 잘한다.
- ㄴ'. *영수는 공부를 잘하나 운동도 잘한다.

위의 예들에서 보면 이음씨로 이어진 9ㄱ)과 9ㄴ)이 자연스러운데 비해 이음씨끝으로 이어진 9ㄱ')와 9ㄴ')는 어색하다. 이렇게 9ㄱ')와 9ㄴ')가 어색한 월이 된 것은, 선행 마디와 후행 마디의 의미 내용이 서로 대립되지 않는데 이들을 대립의 의미 기능을 가진 이음씨끝 '- 으나' 로 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9ㄱ)과 9ㄴ)에서처럼 이음씨 '그러나' 로 두 월을 이었을 경우 자연스러운 월이 되는 것은, '그러나' 가 가지는 대용의 기능 때문이다. 즉 '그러나' 가 대용하는 의미 내용이 후행하는 월의 내용과 대립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그러나' 가 대용하는 대상은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말할이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생각이나 의도이다. 9ㄱ)에서 '그러나' 는 '형만 큰 것 같으나' 정도로 옮겨질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말할이의 숨은 생각이나 의도를 대용한다. 그리고 9ㄴ)에서 '그러나' 가 대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경우가 드물다' 라는 말할이의 숨은 생각이다. 따라서 9ㄱ)과 9ㄴ)에서는 언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에 의해 대용되고 있는 말할이의 생각이나 의도가 후행하는 월의 내용과 대립되게 되므로 자연스러운 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음씨는 주로 문맥 대용을 하며 상황 대용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는 이음씨가 구어 자료보다는 문어 자료에 주로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⁶⁾

3. 대용의 방향

대용은 대용되는 대상이 전술 언급한 내용인가 또는 후술 언급할 내용인가 하는 대용의 방향에 따라 선행 대용(anaphora)과 후행 대용(cataphora)으로 나누어진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음씨 '그러-' 류는 어원적으로 '그러하(그리하)-' 라는 대용 풀이씨의 줄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용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용 풀이씨가 대용의 방향에 있어 선행 대용과 후행 대용이 모두 가능함에 비해, 이음씨 '그러-' 류는 선행 대용만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10) ㄱ. 오늘은 날씨가 좋다. 날씨는 그러하나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 ㄴ. 철수의 생각은 그랬다. 순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록 순이의 생각이 철수와 같지 않더라도.
- 11) ㄱ. 분노에 사로잡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아리아드네는 그 비밀을 아버지인 미노스에게 일러바치는 대신 오래 전부터 자기에게 사랑을 갈구해 온 테세우스에게 말한다. 그리고 약속한다. 미궁 속에 들어가 다이달로스를 죽이면 그대의 사랑을 받아들여주겠다고. 테세우스는 미궁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다이달로스를 처치했다는 증거로 황소 가면을 들고 나온다. 테세우스는 파시파에까지 죽일 수 없었다. 아리아드네도 그것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파시파에는 다이달로스와 함께 미궁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미궁에 대한 추측 ; 327)

10)은 대용 풀이씨의 대용의 방향을 보이는 예이다. 10ㄱ)은 대용의 대상이 선행하는 선행 대용을, 10ㄴ)은 대용의 대상이 후행하는 후행 대용을 나타낸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대용 풀이씨는 전술 언급한 내용을 대용하는 선행 대용을 한다. 그러나 강조와 같은 말할이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 후술할 내용을 미리 대용하는 경우도 있다. 11ㄱ)은 이음씨의 대용을 나타내는 예이다. 그런데 이음씨의 경

6) 이음씨 '그러-' 류 중 '그런데(근데)' 나 '그러니까(그니까)' 같은 것은 구어 자료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경우 '그런데(근데)' 나 '그러니까(그니까)' 는 대용적 기능이 거의 없으며 의미상으로도 특별한 뜻을 가지지 않아 간투사처럼 쓰인다.

우에는 선행 대응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음씨에서 선행 대응만이 가능하게 된 것은 비록 이음씨가 어원적으로는 대응 풀이씨의 줄기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미 이음씨끝과 결합하여 하나의 다른 낱말로 재구조화되면서, 대응 풀이씨의 줄기가 가졌던 대응의 기능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대응 풀이씨의 줄기에 결합되는 이음씨끝은 선행 마디와 후행 마디 사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 대응 풀이씨의 줄기 '그러하-(그리하-)'와 결합되었을 때 선행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인 '그러하-'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음씨끝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 풀이씨의 줄기에 결합되는 이음씨끝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응 풀이씨가 가졌던 대응의 방향 중에 선행 대응만이 그 기능으로 남은 것이다.

4. 맺 음 말

우리말에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 이음씨와 이음씨끝은 동일한 문맥에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떤 문맥에서는 이런 대치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음씨끝이 선행마디와 후행 마디 사이에서 이들을 직접적인 의미 관계로 맺어 주는데 비해, 이음씨는 대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선행하는 월과 후행하는 월을 반드시 직접적인 의미 관계로 맺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음씨가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이 아닌 다른 월을 대응하게 되면 이음씨끝으로의 대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의 기능은 이음씨를 이음씨끝과 같은 다른 이음표지들과 구별해 주는 특징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음씨의 대응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이들이 어떤 대상을 대응하는지를 살펴서 대응의 종류를 나누어 보고, 그에 따르는 특성과 대응의 방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1. 이음씨의 대응은 언어적 대상을 대응하는 문맥 대응과 말할이의 생각이나 의도 같은 비언어적 대상을 대응하는 상황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문맥 대응은 다시 대응되는 대상에 따라 대응의 대상이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 선행하는 단락이나 여러 월인 경우 그리고 이음씨와 대응되는 대상 사이에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월이 개입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대응의 대상이 바로 앞에 선행하는 월인 경우는 이음씨가 대체로 대상이 되는 언어 표현을 그대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선행하는 단락이나 여러 월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들 속에 대상이 되는 단락이나 월들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심월이 있으면 이음씨가 중심월을 대응하게 되고, 중심월이 없으면 단락이나 월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이음씨의 대응에서는 대응되는 대상과 실제로 대응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음씨의 이러한 대응적 특징은 문맥의 이해 과정에서 들을이에 따라 이음씨가 대응하는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리고 이음씨와 대상 사이에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월들이 개입된 경우는 대응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의 월인지 또는 단락이나 여러 월인지에 따라 이음씨가 대응하는 것이 달라진다. 대응의 대상이 하나의 월이면 대체로 별다른 요약 없이 그대로를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대상이 단락이나 여러 월이면 이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대응하게 된다. 그런데 이음씨는 주로 문맥 대응을 하며 상황 대응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것은 이음씨가 구어 자료 보다는 문어 자료에 주로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2. 대응의 방향에서는 대응 풀이씨가 선행 대응과 후행 대응이 모두 가능한데 비해 이음씨는 선행 대응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음씨가 선행 대응만 가능하게 된 것은 비록 이음씨가 어원적으로는 대응 풀이씨의 줄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미 이음씨끝과 결합하여 하나의 다른 낱말로 재구조화되면서, 대응 풀이씨의 줄기가 가졌던 대응의 기능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대응 풀이씨의 줄기에 결합되는 이음씨끝은 선행 마디와 후행 마디 사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

차 운 정

에 만약 대응 풀이씨의 줄기 '그러하-(그리하-)'와 결합되었을 때 선행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인 '그러하-'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음씨끝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 풀이씨의 줄기에 결합되는 이음씨끝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응 풀이씨가 가졌던 대응의 방향 중에 선행 대응만이 그 기능으로 남은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우원(1996), 국어 이음말의 문법, 인제대학교 출판부
김일웅(1982), 우리말 대응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1991), "이음과 묶음",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김태옥·이현호(1995), 텍스트 언어학입문, 한신문화사 (번역 : Beaugrande, R. de and W. Dressler(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Longman)
도수희(1987), 국어 대응어의 연구, 국어학 연구총서 10, 탑출판사
박선자(1997),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신지연(1998), 현대국어의 지시용언 연구, 태학사
신현숙(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론적 연구", 국어학19, 국어학회
양명희(1996), 현대국어의 대응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유목상(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 한글146호, 한글학회
윤웅진(1991), "Sentence Connector가 이해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 사대논문집 제22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윤평현(1992),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